

3/10/24

설교 제목: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1 장 1-11 절

- (빌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빌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빌 1: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 (빌 1: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 (빌 1: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빌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빌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 (빌 1: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빌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빌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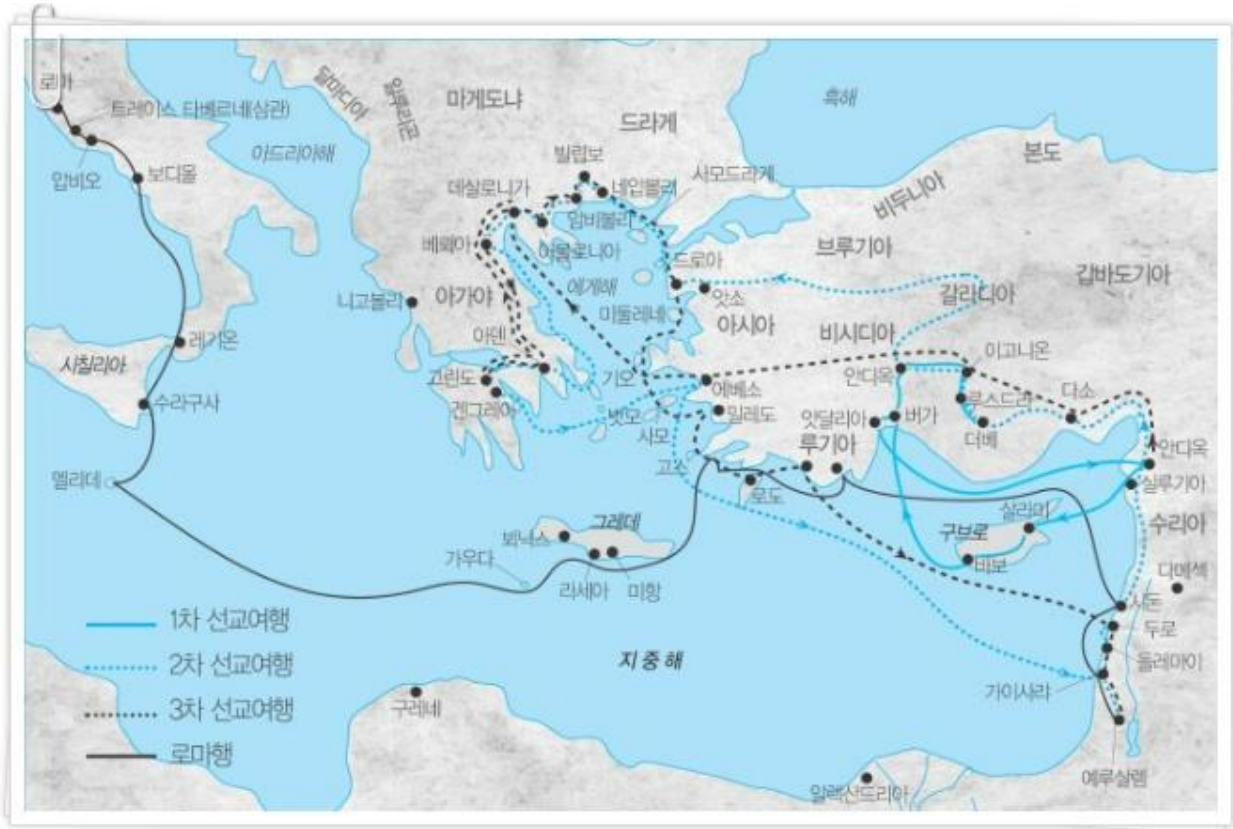
본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 년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AD62) 골로새서(AD62) 빌레몬서(AD62) 그리고 빌립보서(AD63)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AD50 년경에 오늘날 튀르키예 (터어키) 영토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2 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 차 전도 여행시 복음을 전했다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시 방문해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독이고 격려했습니다.

그 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에게 해에 인접한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네압볼리 향으로 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머뭙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데 주축이 된 두 가족, 루디아 가족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신앙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행 16: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행 16: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겼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사도 바울이 잠시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귀신들린 한 노예 소녀가 점을 치는 것을 보고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소녀에게 점을 보도록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주인은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 바울을 당국에 고발하였고 바울은 채찍을 맞은 후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자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간수를 만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행 16: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행 16: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행 16: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행 16: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행 16: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행 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 16: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행 16: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행 16: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행 16: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16: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행 16: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처럼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은 빌립보 교회를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물질로 항상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교회 감독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 사역을 도왔습니다.

(빌 4: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후 11: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교회 감독인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모아 찾아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헌금을 모아 들고 찾아 온 것입니다.

외로이 감옥에 있던 바울은 저들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에 가슴이 메어졌을 것입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 직접 찾아 갈 수 없지만 그림고 보고 싶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지 십여년만입니다.

편지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빌 1:1) 그리스도 예수와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주축이 되어 헌금을 모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헌금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빌 1: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 1: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 1: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하여 루디아 가족과 빌립보 간수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위한 참여를 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다른 곳,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등과 비교가 되어 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부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의 몸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그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날부터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까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하게 하실 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척 그림지만 옥중에 있어 직접 찾아가 볼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 1: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구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총명은 지각적인 통찰력 또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지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함'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 곧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전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빌 1: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교회가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 곧 복음과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순전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소아시아 지방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단 사상 특별히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사상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빌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